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인도 전기차 산업,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로 공급망 리스크 혼란 가중

▶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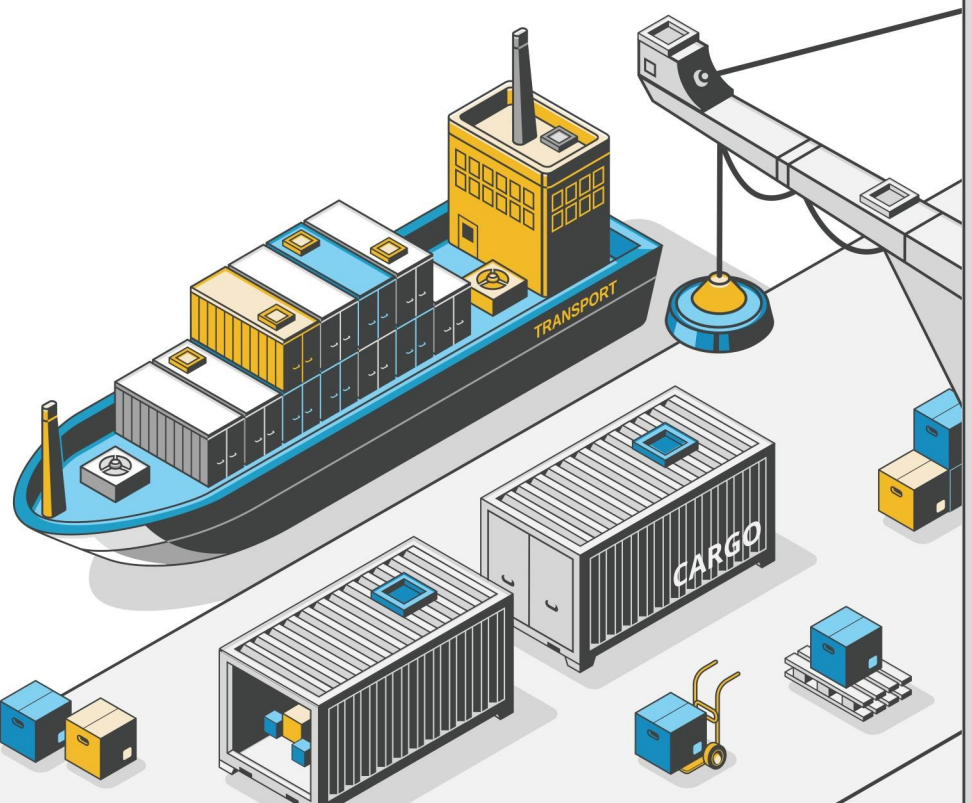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물류 시장, M&A 중심으로 재편 가속

▶ 중동 물류시장 동향

- 이란-이스라엘 분쟁, 글로벌 원유 공급망 혼란 가능성 확대

▶ 공지사항

- 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』 모집 공고
- 『우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인도 전기차 산업,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로 공급망 리스크 혼란 가중

-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인도 전기차(EV, Electric vehicle)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 발생

 - 중국 정부는 '25년 4월부터 희토류 원소 및 자석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으며, 최종 사용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對미 수출 및 방산 관련 품목의 재수출을 금지하고 있음
 - 해당 조치로 화물 선적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데 최소 45일이 소요되고 있어 인도 전기차 생산 및 공급망 전반에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
 - 인도 완성차 업체는 현재 4~6주 분량의 재고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의 수출 제한은 전기자동차 생산 중단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으며, 핵심 제조 분야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- 인도는 연간 540톤 규모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, 이 중 80%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6월 현재까지 해당 수입 품목에 대한 미 승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

 - 플래시 일렉트로닉스(Flash Electronics), 히타치 아스테모(Hitachi Astemo, 바록 엔지니어링(Varroc Engineering) 등의 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이미 핵심 부품 재고 수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
 - 특히 이륜차 중심의 생산라인은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
- 인도 정부는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 중단 사태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부품 현지화 의무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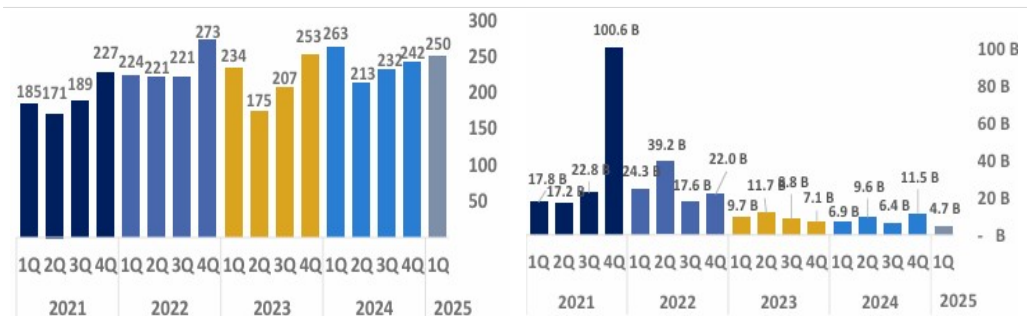
 -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(PLI, Production-Linked Incentive)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해당 제도는 EV 부품에 대해 '50% 현지화 의무(Localisation Mandate)'를 요구하고 있음
 - 하지만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'50% 현지화 의무'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 비공식적으로 생산라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완성 모터나 반조립품을 수입하도록 권고함
 - 그러나 완성 모터를 수입할 경우, 해상 운송 시 모터 1개당 약 2,000루피, 항공 운송 시 최대 5,000루피까지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

- 희토류 수급 부족 문제는 인도 전기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, 장기화 될 경우 인도 자동차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-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인도 자동차 산업이 공격적인 EV 출시를 준비 중인 시점에 발생했으며, 특히 10여 개 이상의 신차 모델이 영구자석형 동기모터(PMSM,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)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
 - PMSM는 EV 핵심 동력원으로, 희토류 자석 없이는 대체 기술 적용이 어려움
 - 지연이 장기화되면 2025년 7월부터 EV 생산 일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,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륜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 - 산업계는 EV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시적 기준 완화, 대체 소재 개발, 핵심 자재의 장기 비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
- 이에 인도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체질 개선 모색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기반으로 대체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
 -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재고 확보, 대체 공급처 확보, PLI 제도의 현지화 기준 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, 중국과의 외교 협상도 병행되고 있음
 - 장기적으로는 공기업 IREL을 중심으로 국내 희토류 탐사 및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고, 재활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아시아 국가와의 공동 탐사 및 협력을 통해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

글로벌 물류 시장, M&A 중심으로 재편 가속

- ▶ 글로벌 물류업계는 물동량 수요 감소 및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수합병(M&A) 전략을 확대해 규모·네트워크·기술력을 갖춘 선도 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- 글로벌 물류업계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외부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고성장을 위한 '몸집 키우기' 전략에 주력하고 있음
 -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기업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략적 인수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,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공백을 보완하며,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로 활용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됨
 - 아울러 물류업계에서 통용되는 'Big is beautiful' 기조 속에,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규모의 경제, 글로벌 네트워크,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생존하고 미래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임

2021~2025년 운송·물류 분야 분기별 인수합병 건수(좌) 및 투자액(우)



자료: R.L. Hulett, 「Transportation & Logistics M&A update Q1 2025」 (검색일: 2025.06.17.)

- ▶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내 인수합병 시행 건수는 증가했으나 고금리와 불확실성 속에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며, 투자금은 소폭 하락하고 있음
 - 2025년 1분기 기준 운송·물류 분야 인수합병 거래 건수는 총 250건으로, 2024년 4분기 (242건) 대비 3.3%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(263건)대비 4.9% 감소함
 - 금년 1분기 거래 증가세는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, 지역별 구분해 살펴보면 유럽이 총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북미 79건, 기타 지역은 총 39건의 인수합병 거래가 발생함
 - 반면 총 M&A 투자액은 2025년 1분기 기준 47억 달러로, 지난해 4분기(115억 달러) 대비 59.1% 감소, 전년 동기(69억 달러)대비 31.9% 감소함
 - 이는 고금리 환경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대형 거래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거래 규모가 소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임

2025년 1분기 운송·물류 분야 지역별 인수합병 건수



자료: R.L. Hulett, 「Transportation & Logistics M&A update Q1 2025」 (검색일: 2025.06.17.)

▶ 글로벌 주요 물류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성, 성장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 시장 재편 주도

- 대표적으로 덴마크 DSV는 지난해 4월 DB 쉐커(DB Schenker)를 162억 5천만 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며, 매출이 450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했고 90여 개국에 16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물류기업으로 도약함
- 독일 물류기업 닥서(Dachser)는 유럽 외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항공·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 8건의 인수를 단행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추가하며 기업 성장률을 5%에서 8%로 끌어올림
- 덴마크 물류기업 스캔 글로벌 로지스틱스(Scan Global Logistics)도 인수합병을 통해 전 세계 30개국에 자사 네트워크를 확장해 고객에게 일관된 end-to-end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
- 일본 우정(Japan Post) 산하 톨 그룹(Toll Group)은 독일, 네덜란드, 동남아 및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 식음료, 기술, 헬스케어 등 특화 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물류기업을 인수해 전문성과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임

▶ 이에 중소형 물류기업 또한 역량 확보와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물류시장 재편에 대응

- AIT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는 지난 1월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 전문업체인 크루프 트러킹(Krupp Trucking LLC)을 인수해 기술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함

- 미국 물류업체 Q 로지스틱스 홀딩스는 글로벌 특송기업인 아라멕스(Aramex)에 12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하며 대형 특송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독일 물류업체 헬만(Hellmann)은 신선 물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HPL 아폴로를 전면 인수함
- 독일 물류서비스 기업 아르바토(Arvato)는 미국 이커머스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 3자 물류 업체인 Carbel LLC와 United Customs Services를 성공적으로 인수해 북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

-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운송·물류 분야는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합병을 주도하며, 글로벌 물류시장은 규모와 역량을 갖춘 소수 강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
 - 다만 이러한 인수 열기 속에서도 자금 조달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있으며, 특히 관세 리스크가 높은 현재 글로벌 무역환경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
 - 이에 따라 운송·물류 분야는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(Financial Investor)보다는 사업 확장 및 신규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(Strategic Investor)가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있음
 - 결국 글로벌 물류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규모와 전문성, 네트워크 통제력을 갖춘 소수의 강자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이 압축될 것으로 전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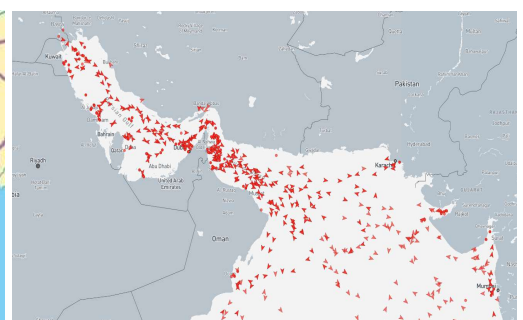
이란-이스라엘 분쟁, 글로벌 원유 공급망 혼란 가능성 확대

- ▶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 실시했으며, 이에 분쟁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원유 수급 등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확대 전망
 - 이스라엘의 공습 경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선제 공격을 개시하면서 양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본격화됨
 - 해당 국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,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특히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해상운임 증가가 우려됨
 -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, 오만, UAE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원유 수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협 봉쇄시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급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 카타르, UAE의 LNG 수출 경로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인도, 일본 및 우리 나라로 수입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및 유가 급등 등 크게 영향을 미침
- ▶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해협 봉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 필요
 -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최대 수출입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, 호르무즈 해협 봉쇄시 유가 급등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약화 가능성이 존재함
 - 또한 과거 해협 봉쇄를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해협 봉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럼에도 대형 유조선 선박 운행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정세 및 국가별 조치 등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 마련 필요

이란 호르무즈 해협 위치 및 탱커선 이용 현황



호르무즈 해협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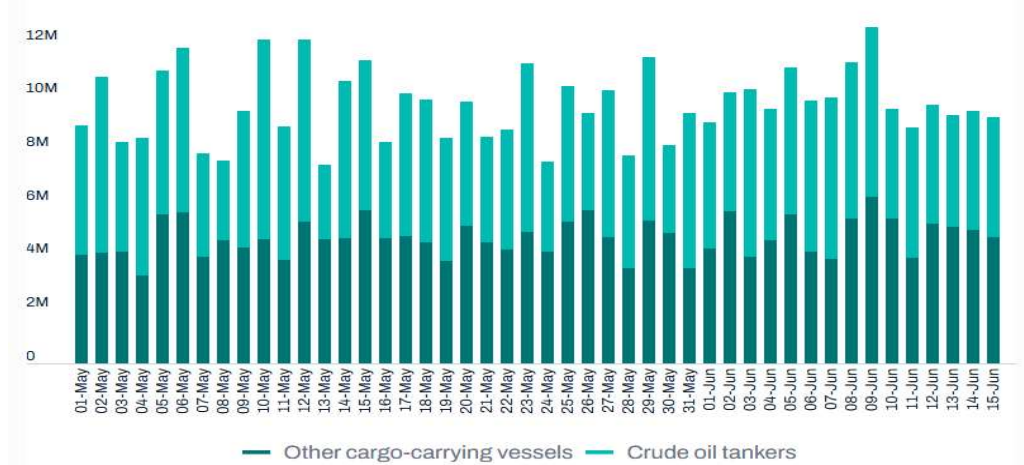


호르무즈 해협 이용용 탱커선 현황(25.06.17. 기준)

자료: www.ebn.co.kr, https://www.marinetraffic.com (검색일: 2025.06.17.)

- ▶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요 항만, 공항 및 철도 등 주요 물류인프라 또한 일부 피해 발생하고 있으며, 무력 충돌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일부 선박의 경우 우회 혹은 운항 보류하는 등 글로벌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항만,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만을 포함한 물류 인프라의 경우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,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
 - 그러나 본격적인 분쟁발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 대비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특히 원유 운반 탱커선 통과 현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분쟁의 장기화 및 확산 우려로 선박을 우회하거나 운항을 보류한 것으로 예상됨

총 적재톤수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현황(2025년 5~6월 기준)



주: 1만 dwt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만 포함, AIS(자동식별시스템)가 작동 중인 추적 가능한 선박 집계
 자료: <https://www.lloydslist.com> (검색일: 2025.06.17.)

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』 모집 공고

2025년
해외물류시장
개척지원 사업
모집 공고

2025. 5. 26(월) - 6. 27(금)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「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제출 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
국제물류 정보포탈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에서
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(hjsung@kmi.re.kr) 제출

문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김동환 센터장
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
성현정 전문연구원
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사업 개요

1.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
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자본투자)
-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
지원내용
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
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
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금액

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 (최대 **1억원**)
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 사업

해외물류거점 확보(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), 수출입 물류공급망
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, 현지 물류시장 조사 등에
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
직접비용(인건비, 국외출장비, 컨설팅비 등) 지원

지원금액

✓ **물류기업** 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
단독 수행 (최대 **3천만원**)

✓ **화주·물류기업** 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 지원
컨소시엄 (최대 **4천만원**)



『우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
2025
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
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

2025.06.02(월) - 09.05(금)

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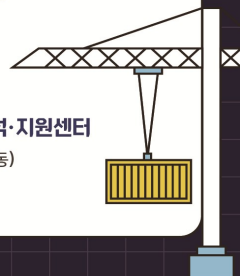
- [물류정책기본법] 제38조 및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)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- [항만법] 제2조 제4호 및 [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]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*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(물류창고)로 인증 신청
-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
 -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
 -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
 -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
 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인증기준 및 절차

-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[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]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'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'에 따른다
- 최종 결과발표(예정) : 2025년 12월 중

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방법 : e-mail 접수(아래 메일 주소 참고)
- 신청 수수료 납부
 - * 신규 인증 : 300만원
 - * 납부 계좌 :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
- 문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 - *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 - * 문의 :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